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예로부터 인문학은 인간의 무늬와 향기와 가풍을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본령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 존재해 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에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이 제시하는 본래적 의미는 간과한 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응하는 좁은 의미의 인문학으로 학문적 범주를 가두고 있다.

본디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로 분류되는 인문학 내부에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적인 결이 내재되어 있다. 지금은 이들 사이에 내재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상호 소통의 결을 찾아내어

융복합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때이다.

최근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국 학생 대표자 1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문학보다 취업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대학과정을 마차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다시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말은 인문학 계열 학과의 학생들도 전공보다 취업을 우선해서 공부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취업’은 생업이다. 생업은 인간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대책이다. 문제는 취업 즉 먹고사는 문제만 고민하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가 인문 사범 계열 학과의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시사해 놓은 상황을 감안하면 황 장관과 교육부 판로들의 인문학 인식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지난 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학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발표자들은 대학인문학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낮은 취업률과 모호한 취업 분야 △과학기술 분야나 경제, 경영학과 같은

분야에 비해 비전문적으로 보이는 지식 능력 △표준화시키기 어려운 전공 지식 (졸업 때 기대되는 혹은 향상되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 △인터넷 상의 인문학 정보가 범람하는 속에서 대학인문학의 특성이 불분명해짐) △전문화된 인문학의 사회적 적합성 모호(읽히지 않는 전문적 인문학 논문과 저서들)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인문학자들의 ‘대학인문학의 진흥방안’은 △인문대학원의 정예화와 내실화 △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간의 장벽 제거 △학문간 장벽을 넘어선 문-이과 통합적 학사교육 △융합전공 분야(지역학, 문화학, 치료인문학, 디지털인문학)의 개발 △평생교육과정, 타학문 연구자를 위한 기초인문학 과정 개발로 제시됐다.

여기에 덧붙여 토론자는 △과감한 재정지출 및 여타 정책적 지원(인문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도록 만드는 특단의 조치) △매체환경의 변화가 클수록 사회 전체가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 위해 대학입시에 논술비중 확대 방안 △우리 과거의 인문 전통과 서양인문학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제3의 인

문학적 담론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살과 복약이 많아지는 공필과 우울의 시대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 안고 살아가는 시민 개인들에게 인문적 성찰의 능력은 더욱더 내면화되어야 한다. 인성이 사라지고 인격이 함몰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자본만을 최고의 진리이자 도덕적 가치로 여기고 살 것인가? 바른 인성으로 재화를 창출하고 바른 인격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려는 노력은 왜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가? 인문학의 힘은 더 맛있는 밥을 짓게 하고 더 맛있는 떡을 만들어 내는 동력이다. 인문학은 취업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창업의 아이디어를 부여한다. 인문정신은 수동적 취업뿐만 아니라 능동적 창업도 독려해 주고 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같은 창업자는 인문학의 힘을 보여준 이들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상상력·창의력의 원천

社說

학회지 전자저널화, 불교학계 고민해야

불교학계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인 ‘잼스’(JAMS,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를 두고장고하고 있다.

‘잼스’는 학술진흥재단이 2013년부터 학회 운영 전산화에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학회 홈페이지부터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일정, 회원 관리 등을 통합한 것이다. 논문투고 및 심사, 전자출판,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쪽으로의 학술정보 제공까지의 학회 행정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권장사항으로 서버와 홈페이지 등 이 시스템을 현재 무상보급하며 학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잼스 시스템을 도입한 학회는 370곳, 신청 학회까지 200여 곳을 넘어섰다. 올해까지 60여 곳이 잼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학회 2100곳 기준 30% 수준으로 올해부터는 일반학회도 신청을 받기에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불교계에서는 12개 학회 중 한국선학회와 불교학연구회 2곳이 잼스를 도입했다. 두 학회는 최근 학회지 투고논문을 ‘잼스’를 통해 받는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잼스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집기능 저하와 학회 운영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논문 심사를 위해 잼스에 가입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잼스 도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잼스를 도입한 불교학연구회는 불교학계 최초로 학회지를 전자저널로 전환했다.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는 전자책(ebook)과 PDF파일 두 가지 형태로 간행되며, 회원들에게 이메일 형태로 발송한다.

이를 두고 조은수 불교학연구회장은 “전자저널화는 학회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바이호르 디지털 시대다. 학회지 전자저널화는 분명 관련 논문 검색을 용이하게 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30주년 맞은 ‘불레협’에 거는 기대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는 교계에서 유일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밌게 포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지난 1985년 창립한 불레협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불레협은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울동강의, 음악지도법 등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을 통해 300여 지도자를 배출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앞장서는 전방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꽃인 여름·겨울불교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현재까지 54회나 열면서 3만 여 수료자를 배출해 포교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1994년 7월에 마련된 어린이 여름 캠프는 교계에서 불교 어린이 캠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찰과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단체들의 법회와 행사, 사찰 여름·겨울 불교학교 및 수련회 등을 기획하고 지도자를 파견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법회 활성화와 포교의 전방자로서 역할도 다한다.

불레협은 시대에 맞게 온라인 활동도 강화했다. 2000년 다음카페에 이어 2004년 홈페이지를 오픈해 보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수도권 어린이·청소년 법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운영, 법회개설지원, 어린이 찬불울동제, 전국어린이언플로래잔치, 자료집과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까지 꾸준한 정기 문화강좌를 열던 불레협은 올부터 다시 강좌를 연다. 교리전달법, 공예체험, 찬불가 지도법, 놀이와 게임을 법회에 바로 사용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불교레크리에이션은 이제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꼭 필요한 포교방법이 됐다. 30주년을 계기로 지도자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길 기대한다.

발언대

청년마음출가학교 회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월정사에서 개최된 ‘청년마음출가학교’가 2월 4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했다. 지치고 힘든 청년들에게 출가학교는 불교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의 소감문 일부를 발췌한다.

마음의 절을 짓고 불자로서 살겠습니다



월정사 청년마음출가학교에 참가한 청년들이 부도전 앞에 눈사람을 만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내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청년마음출가학교에 오기 전에는 심신이 아주 낙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취업을 앞둔 상황에 불안함과 조급함에 늘 답답함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휘둘려 제 자신을 비교하고 더 밑으로 끌어내리곤 했다.

처음 입학 했을 때는 반신반의 했다. “과연 내가 8박 9일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취업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가 지난날부터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저에게 남은 숙제는 “이곳을 떠나 제자리로 돌아가서 얼마나 이 마음을 유지 하는가”이다. 마음에 절을 짓고 늘 수행하는 행자의 마음으로 불·법·승에 귀의 하는 불자가 될 것이며 제 인생에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바라보고 그를 내려놓을 수 있는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참가자 김아경>

출가학교는 평생의 기본일 것

오기 전에 나는 컴컴한 어둠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이 기분을 그냥 무시하려고만 했다.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잊혀져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청년마음출가학교에 와서 느낀 건 무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8박 9일 동안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밖에서는 힘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다. 너무 좋았던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좋은 공기와 경치를 보면서 얼얼했던 마음도 풀려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밤 별칭 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본 별명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 8박 9일 동안 절제되었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소중한 행복이 얼마나 행복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불행과 행복은 한 끝 차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다. 아직 더

나를 가다듬는 수행이 필요할 것 같지만 8박 9일 동안에 청년마음출가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나의 기본이 되어 질 것이다.

<참가자 정민영>

인연 궁덕이 변함없길

마지막 공식 일정인 별빛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저 말하늘에서 혼자만 반짝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어두운 밤, 수많은 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장관에 저는 한없이 작아졌다.

월정사에서 내려간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있을 겁니다. 하늘 위 움직이는 별, 스텔라디스크를 꾸꾸고 왔던 꿈은 이제 조금 접어두고 인생을 즐기는,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만 반짝이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두운 밤을 수놓는 별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쌓은 혹은 쌓인 인연이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기도합니다.

<참가자 남유진>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할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